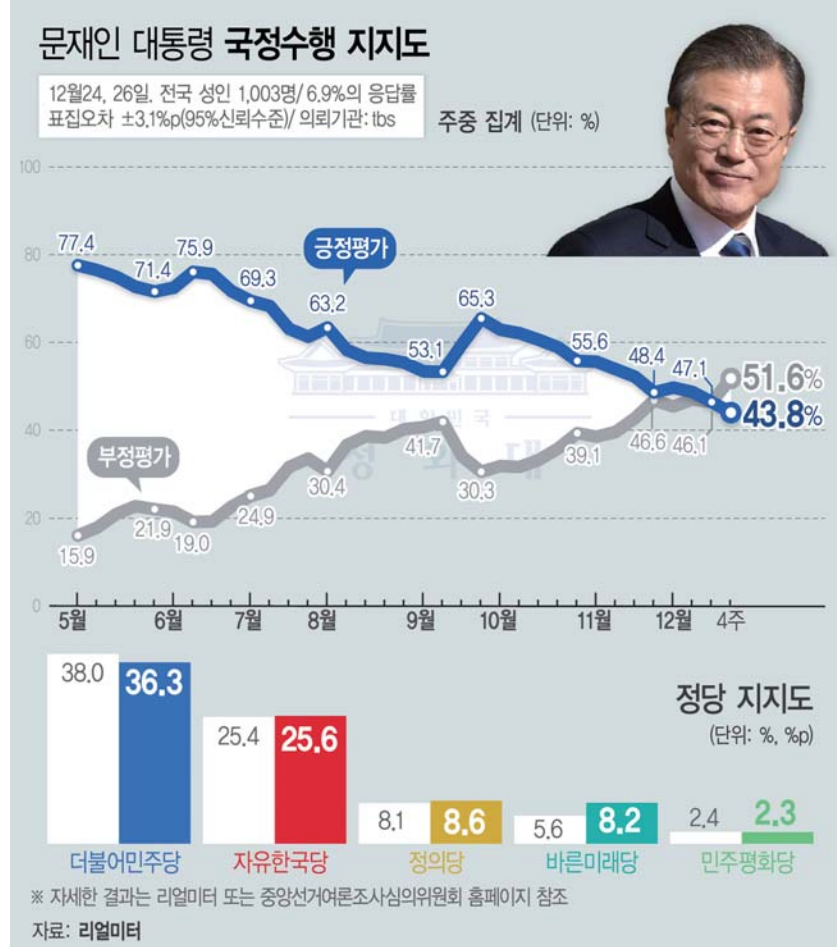


文대통령 지지율 43.8% 부정평가 응답 절반 넘어

민주 36.3% · 한국 25.6% · 정의 8.6% · 바른 8.2% · 평화 2.3% 순



원 김태우씨의 잇단 폭로에 대한 여파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도 내리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11.3%p, 48.0%→36.7%, 부정평가 60.3%)에서 큰 폭으로 이탈하며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또 50대(▼9.4%p, 41.5%→32.1%, 부정평가 62.5%)와 경기·인천(▼10.5%p, 50.2%→39.7%, 부정평가 57.2%)에서도 상당 부분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외에도 노동직과 지역업, 30대와 40대,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민주당·바른미래당·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에서도 상당 부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보수층과 진보층은 결집했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등 김태우 폭로 사태 관련 논란,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범정 주류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대비 1.7%p 내린 36.3%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25.6%), 정의당(8.6%), 바른미래당(8.2%), 민주평화당(2.3%)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한국당은 0.2%p 올랐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0.5%p와 2.6%p 각각 올랐다. 평화당은 0.1%p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고견 청취'에 나선 文대통령, 민주당 원로들과 오찬

정세균·문희상·김원기·임채정 전 의원 등 4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로 정치인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50분까지 청와대에서 원로 정치인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있는 김일기 전 의원과 임채정 전 의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문희상 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찬은 연말 연시를 맞아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온 원로 정치인들로부터 고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올 한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문 대통령은 그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 측은 이날 통화에서 "민심과 정국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라며 "시중에서 현 정부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민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김병준 "文대통령, 잘못된 정책 고칠 용기가 가져야"

"용기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 죽어" 강조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산업정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성을 말

셈하시고 최저임금 속도가 빠르지 못해보기도 하고 대통령도 무언가 의문이 생긴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철호 의원이 별통에 해로운 건 벌에게도 해롭다는 문구를 소개해 줬는데 기업에 해롭고

고용인에게 해로운 것은 피고용자에게도 해로운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데 국가가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게 참 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 밖에 나와서 물어보라. 식당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물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꾸 의문을 품으면서 신념과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며 "현장에 나가서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용기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죽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비대위 체제 이래 후반기를 행했었지만 못다 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많다'라며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민주당이 지지율에 비해 혁신이 일상화되는 정당인데 국민 신뢰 확보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윤호중 'GP 철조망 선물' 논란에 "모르고 받았고, 즉시 반납"

"보존 국방부 지침 몰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전방 부대 사단장이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감시초소(GP)의 철조망을 자신을 비롯한 일부 의원에게 기념 선물로 증정

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지침)을 모르고 받았는데 알게 되고 즉시 해당 군부대에 반납 조치했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總策)투어 보고에서 GP 철수 지역을

방문하면서 철수하면서 나온 철조망을 한 7cm 정도 액자에 넣어서 받았는데 '철수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일단 보존하라'는 국방부 지침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저에게 왔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스

한국당 "靑 특감반 의혹' 압수수색은 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쇼'라고 비판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단장은 27일 조사단 회의에서 "어제 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 쇼를 했다"라며 "쇼를 중독 정부라

는 건 알았지만 공분을 사고 있는 수사에서까지 쇼를 하는 걸 보니 측은하기까지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선택 압수수색', 경계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 중요한 휴대폰 한 대도 제출하지 않는 '행방 압수수

색'이었다"라며 "청와대와 검찰은 압수수색 쇼를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청 경내 들어가 수사 필요한 모든 증거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이 일어나 생각된다"라며 "어제 보여주시길 압수수색을 비춰볼 때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특검도 불기피하지 않는 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광산구